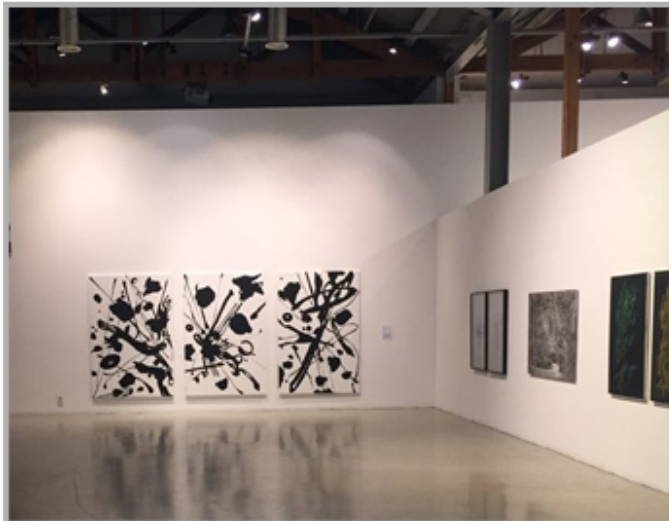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B□ □□□□□□ 9□ 25□(□)□□ □□□□□□ □□□□□□ □□□ Wet Paint□□ □□
□□ □□. □□ □□□□ Wet Paint□□ 9□ 23□(□) □□ 25□(□)□□ □□□ □□□□□□ □□□
□□□□□□ 2016□ □□ □□□□ □□□□□□ □ □ □□ □□□□. □ □□□ □ □□□ 6□□ 34□(50
□) □□□□ □□, □□, □□□□ □□ □□ □□ □□□□, □□, □□, □□, □□ □□ 40□□□□ □□
□□ □□□□□□ □□ □□□□.

이 프로젝트는 Wet Paint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예술가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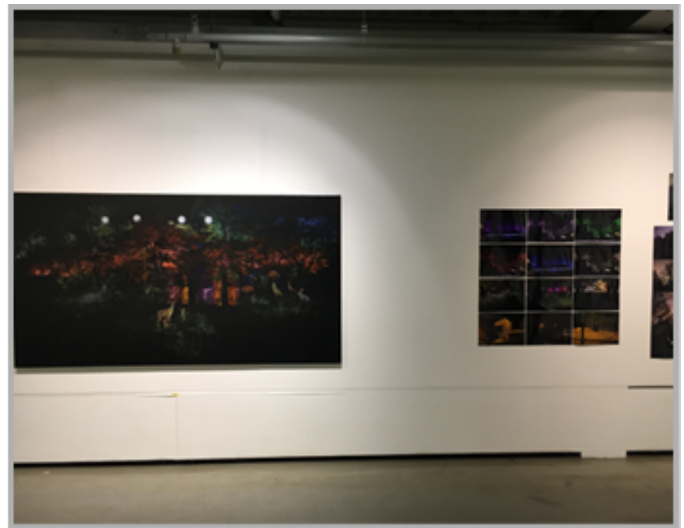


프로젝트 소개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관객이 예술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אני מרגיש.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אני רוצה לראות את המוזיאון הזה ואני מרגיש שזה יהיה משהו מיוחד.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의 의미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콜로키움 들여다 보기]

8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는 B동 전시장에서 연계전시<젯 페인트 WET PAINT>의 시작을 알리는 콜로키움 '연계의(불)가능성_ 동시대 미술의 단면들'이 진행되었다. 본 콜로키움은 올해 입주 작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적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단면들과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아트플랫폼 현 입주 작가이자 미술비평가인 김홍기와 함께 기획되었으며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았다. 김홍기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본 행사는 1부에서 '가면의 고백_불안사회의 초상'라는 주제로 정현(인하대학교수, 미술비평가)교수가, '여자의 노종/작업, 새로운 이름'이라는 주제로 미술비평가 현시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전시기획자 채은영이 '매체의 재/전유, 상황적 풍경'을, 미술비평가 구나연이 '포스트모더니즘 그 이후, 또는 '후(後)'라는 착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콜로키움은 위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광범위한 동시대 미술의 맥락과 이슈를 점검하고 (재)배치해 보고자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